

제15회 일본연구소 연구집담회

일시: 2010년 5월 26일(수) 12:00~14:00

장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GL-Room

발표: 일본의 목욕탕과 목욕문화

(박동성: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토론: 이원우(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발표내용

발표자는 시모다 온천에서 필드작업 2년 반을 수행. 센토의 변천을 통해서 본 시모다 지역의 사회사가 논문주제.

일본사람들이 목욕을 좋아하는 문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자주 몸을 씻는 습관이 일본에서는 일반적이고 청결하다고 해석하지만, 목욕과 청결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과거에 청결을 위해 열심히 목욕을 했던 것도 아님. 물론 목욕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점은 사실. 그러나 조금 시기를 올라가봐도 요즘 같은 목욕문화는 근래적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1940~50년대의 경우, 한달에 한두번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인터뷰에서 들음. 집 안에 목욕시설을 갖춘 것은 근래. 인구와 센토 수를 비교해보면, 매일 목욕할 만큼 센토 수가 많지는 않았음. 또 최근 들어 목욕문화도 많이 변화하고 있음.

* 센토의 내부-반다이 : 사진 설명

주인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탈의실 안 자리에 앉아 표를 받고 탕 안의 청소도 함.

일상공간과 다른 別공간이라는 데에는 다들 인식.

센토는 돈을 내고 목욕을 하는 곳. 하나의 업종. 센토쿠미아이(센토조합)가 있고 현 단위로 조직되어 있음. 입욕료를 결정. 목욕료는 아직도 400엔 정도로 설정되어 있음.

아프리카에서 목욕을 금기로 정한 부족사회도 있고, 사막지역에서는 1년에 한 번 목욕을 하기도 함.

야나기타 쿠니오에 따르면, 목욕(風呂に入る)은 무로(室)에서 나온 개념.

중세를 거치면서 절에서 사람들을 시욕을 시키는 관습이 있었음. 종교의례로서의 입욕.

카마쿠라 시대 말기(13~4세기)에 센토가 발생. 에도시대에 최초로 센토가 생긴 것은 1591년이고, 에도에 1000여곳의 센토가 번성.

시모다는 이즈반도에 있음.

서일본에서 동일본(동경)으로 들어가는 모든 배들은 모두 이즈반도를 거쳐 입항을 해야 함.

에도시대 막부의 관심사는 군사적 안정. 에도에 들어오는 모든 배들을 검색하는 장소로 초기에 시모다에 건설. 약 100년 간 바다의 관문 역할을 수행. 화물검사 등. 당시 시모다 인구가 5000명 수준이었는데, 물동량이 상당히 많았음(3000척).

17세기 말, 에도막부가 안정화되면서 군사적 의미에서의 기항지는 쇠퇴. 이후 에도에 더 가까운 곳으로 관문을 옮김. 18세기에 들어서, 바다의 검문소를 요코하마로 이전. 이때부터 시모다가 경제적으로 쇠퇴. 1854년 페리가 내항과 개국. 시모다가 최초의 개항지가 됨. 시모다는 상선들의 기항지로서 선원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항구도시로서의 성격을 유지.

<페리원정기> 내부의 하이네의 그림 설명: 자쿠로구치

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연료를 절약하는 실용적 목적의 구조물.

조명이 없었으므로 상당히 어두웠을 것으로 추정.

다양한 에피소드가 등장: 센토 안에 시체가 있었던 것, 아이들이 소변을 보는 것 등 청결과는 거리가 먼 장소. 실제 위생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았을 것으로 추측. 메이지시대에 자쿠로구치 철폐령이 내리기도 함(1892년).

메이지시대 센토는 경시청 관할로 바뀜. 1887년까지 자쿠로구치를 없애고 개량욕조로 개장할 것을 명령. 욕조를 외부로 드러내는 것. 센토들이 온천 분위기를 연출해냄. 1910년대에 벽화가 등장. 땀방울.

전후의 센토.

1948년 매춘금지법 실시. 시모다 환락가가 공식적으로 철폐됨. 시모다 센토의 고객 감소. 경제성장 이후 욕내욕실의 등장. 동경도내의 경우, 센토 수는 1965년 2641개이던 것이 2007년 923개로 줄어듦.

센토가 줄어드는 대신에 온천들이 등장. 센토조합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 영업. 1970년대 이후 굴착기술 발달로 인해 온천 수가 증가. 슈퍼센토와 쿠아하우스(1990년대 이후 유행), 한국의 찜질방 진출.

◎ 토론내용

유학시절 아다치구에서 삶.

한국은 때를 벗김. 일본은 그저 쉬는 곳.

샤워 이후 입욕도 일본의 탕 문화로 보임. 벽화도 있음.

일본에서 센토문화의 시작에 대해 박동성 선생님은 카마무라 시대로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체로 불교와 관련된 것 아닌가? 물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막말에도 센토금지령이 있었다고 하고 혼욕을 금지했다는 기록도 있고 카부나카마 등도 없애려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막부 당시 4회 정도의 개혁이 있었는데 주안점은 검약. 그렇다면 물을 데우기 위한 연료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혼욕을 금지한 것은 막부측에서 봤을 때 풍기문란이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메이지 이후로는 서양을 시선권력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만.....

남녀혼탕은 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닐까? 하나의 탕에 많은 사람을 들여보내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

◎ 답변

일본에서 목욕의 대중화가 불교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목욕행위 자체가 종교행위와 연관된다, 돈을 내고 목욕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로 보임. 고려시대에는 목욕문화가 일반화, 성행했다고 함.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없어짐. 일본의 <공중욕장사>에 보면 세종시대 사신단이 일본에 와서 목욕문화를 보고 기록했다는 점이 나와 있음.

텐포개혁 당시 가부나카바 해체는 검약보다는 화재예방이 주된 이유로 보임. 또 이익독점을 문제삼은 점도 있다고 봄.

목욕과 풍속. 에도시대 센토는 1층은 목욕, 2층은 놀이를 하는 곳.

혼욕에 대해 <페리원정기>에서는 센토에 대해 부정적 입장. 아주 음란한 것으로 봄. 반대로, 해리스는 <해리스의 일본체제기>에서 긍정적 입장을 유지.

◎ 추가질문

쿠스리유(藥湯)는 어떤 체제?

◎ 답변

카부나카바의 지배를 받지 않음. 일반 센토보다 비싼 가격을 책정.

◎ 플로어 질문

(임채성) 목욕이 의료, 위생,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양에서는 이른바 '근대의 상징'이라고 생각됨. 그리스/로마 시대에 활성화되었다가 중세에 쇠퇴. 근대 이후 다시 부흥하여 질병퇴치 등에 기여했다는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일본의 경우 근세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함으로써 서양에 비해 '근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함. 그렇다면 일본의 이런 목욕문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에도시대 위생이나 질병의 발생도 등에서.

(답변) 고대유럽의 목욕문화는 청결보다는 즐거움의 장소. 중세에 쇠퇴하는 것은 음란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있을텐데, 일본에서는 돈이 되겠다 싶어서 장사꾼들이 관심을 가진 것. 근세에 목욕이 일반화된 것은 종교의례나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할 듯. 위행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남기정) 센토문화와 위생신화가 결부되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미국인 두 사람의 일본 센토관은 오리엔탈리즘. 조선과 만주에 목욕탕을 만들어가면서 위생신화를 구축. 이런 것을 지역의 사회사 안에서 '놀이에서 위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답변) 메이지 10년대에 위생관계의 언급들이 나오고 있음. 오리엔탈리즘의 측면에서 보면

페리와 해리스 간에 차이가 없는 편. 해리스는 장기체류하면서 일본에 동정적인 입장을 가졌고, 페리는 잠시간의 경험이 있었을 따름.

(남기정) 당시 서양인 중에 일본의 혼욕에 대해 더 인간적인 문화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역사회 연구를 하면서 '목욕탕에 가야 깨끗해진다'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시점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지? 그래야 사회사적 함의를 명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됨.

(답변) 목욕이 가진 문화적 가치들 - 청결, 위생 - 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봄.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다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끝>